

전주, '사회혁신 전진기지' 된다

전북도-전주시-행안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사회혁신 한마당' 개최 디지털 사회혁신·국민해결프로젝트·사회혁신가 포럼 컨셉으로 진행

전주시가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아이디어로 풀어가자는 사회혁신의 전진기지가 된다.

전주시와 전북도,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최하고 민간 사회혁신가로 구성된 사회혁신 한마당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제1회 사회혁신 한마당'이 오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2018@전주'라는 브랜드로 개최되는 '사회혁신 한마당'은 올해 행정안전부의 사회혁신추진단이 전주시가 그동안 펼쳐온 사회적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도시혁신 등 지역혁신 관련 정책들이 정부의 인정을 받아 지난 6월 행안부가 공모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전주에서 전국 최초로 열린다.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사회혁신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비중학생 부모 대상 교육

전주시가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앞둔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고 나섰다.

전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지훈)는 15일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중 자녀의 중학교 입학에 앞둔 부모 2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중학생 자녀를 위한 전환기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김영희 전일중학교 교사가 강사로 초청됐다. 강 교사는 이날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고입을 위해 중학교 3년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 △학교생활 및 학부모의 역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부모교육에 참가한 맥리사 씨(캐나다 출신)는 "중학교 과정이 중요한 만큼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 언제든지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가 최근 들어 △성매매집결지인 선미촌을 문화예술마을로 재생하는 서노송예술촌 프로젝트 △팔복동 공업단지내 방치된 폐공장을 예술거점으로 승화시킨 팔복예술공장 △도로의 의미를 다시 새긴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충경로 차 없는 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혁신을 정책으로 펼쳐온 점이 이번 행사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식행사로, △디지털 사회혁신 △국민해결프로젝트 △사회혁신

가 포럼이 '혁신은 멋있다'를 컨셉으로 진행된다.

또, '혁신은 멋있다'를 컨셉으로 혁신 컨퍼런스와 스테이지토크가 열리고, '혁신은 즐겁다'로 혁신 놀이터와 혁신사례 전시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행사프로그램의 '잠 못 드는 전주'는 행사전(23일~25일)에 전주한옥마을과 풍패지관, 전북대학교 등에 '의제의 벽'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역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바탕으로 행

사일 내내 시민과 전문가 등이 토론하고 그 결과를 전주시에 전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회혁신 한마당에 발언과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simfesta.com)를 통해 연사로서 미팅 개설이 가능하고, 행사 기간 내내 한국전통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마련된 각종 전시 및 체험에도 참여할 수 있다.

양도식 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렵고 몇몇 활동가들의 몫이라 생각했던 사회혁신 활동이 시민들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에 대해 자유로이 토론하고 즐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1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전주지방법원청사 신축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청사를 둘러보고 있다.

"사법행정체계 변혁 필요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전주 방문... 현안 건의사항 등 청취

김명수 대법원장(59·사법연수원 15기)이 15일 전주를 방문했다.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관할이 아닌 전북, 전주지방법원을 임기 초기에 방문하는 것은 32년 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현장을 찾아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으로 부터 건설 상황에 관해 설명을

듣고 신청사를 둘러봤다.

이후 전주시 덕진구 현 전주지법 청사로 이동해 구내식당에서 본원 관사 등 직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면서 여러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우리 법원은 과거를 정리하는 동시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사법부가 설립된 지 올해로 70주

년을 맞았고, 그동안 구성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사법행정체계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변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법원이 처한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는 법과 원칙에 맞게 답변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원 구성원들도 참고 안내하면서 이런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스테이트스트리트 은행 전주사무소 개설 환영"

전주시의회 "글로벌 투자기관 유치 나서야"

박병술 의장 "지자체 등과 협조"… 개소는 내년 1월

전주시의회가 최근 국민연금공단과 전주사무소 개설을 위해 MOU 체결을 마친 글로벌 수탁은행 SSBT(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의 전주입주를 적극 환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환영 성명서를 내고 미국에 본사를 둔 수탁업계 1위의 금융기관 전주진출을 향후 전북 혁신도시의 금융 중심지 지정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환영했다.

특히,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거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수탁은행이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면 국민연금 자산관리 인프라의 선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도와 전주시 등이 전북 혁신도시 금융 중심지 지정을 준비하

는 상황에서 SSBT의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소는 평가지표에서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소이자 향후 국제 금융기관의 집적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앞으로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이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투자기관의 전주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시의회는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도와 전주시 등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SBT의 전주사무소 개소는 내년 1월이며 근무인원은 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KOTRA,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주시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돕기위해 나섰다.

시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북 KOTRA지원단(단장 이광일)은 15일 전주원호관에서 전주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2018년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기업의 해외마케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KOTRA 해외무역관과 협력해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 필리핀 등 15개 국가의 유망바이어 25개사가 초청됐다.

시는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전주지역 우수 수출업체와 내수업체 등 60여 개 업체들과 해외바이어들과의 1:1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 이날 참여한 기업들의 주요 상담 품목은 기초화장품과 마스크 팩 등의 미용제품, 유자차와 분말차 등의 식품군, 고무장갑 등의 생활잡화, 가전제품 등이다.

특히, 전주시 소재 에너지시스템 전문기업인 '위 에너지'는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베트남 'WEEVIET'사와 무정전에너지시스템 수출을 위한 10만 달러 규모의 MOU를 체결함으로써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또한, 시와 전북KOTRA지원단은 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전주를 찾은 해외바이어에게 참가기업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어와의 매칭을 최적화했다. 또, 상담회 이후에도 내수기업과 수출초보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전문위원을 멘토로 활용하고 바이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출계약 성사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일일 명예시장 위촉

전주시는 15일 송민영 씨(45, 금암동)를 제9대 전주시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송민영 일일 명예시장은 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의 경험을 살려 전주시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제7회 시민원탁회의에 참여했고 활발한 의견개진과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9월 열린 '제7회 전주시민 원탁회의'에서 BEST 시민참여상을 수상했다.

송 명예시장은 첫 업무로 견고싶은도시과를 방문해 전주시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보고받고 천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대응총괄추진단을 방문해 지난 원탁회의 때 제안했던 의견 반영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팔복예술공장 등을 방문했다. /송효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